

총소리 공포·학교 안가는 즐거움...아이들 눈에 비친 5·18

문화예술로 만나는 '오월'

③ 문선희씨 발간 5·18 인터뷰집



문선희씨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2년간 당시 초등생 80명 만남 기록

불완전한 기억도 역사의 중요한 부분

22일까지 은암미술관서

인터뷰이들 살았던 동네 사진전도

“일단 학교를 안가서 좋았어요. 근데 밤에 땅을 뿔뿔 흘리면서 두꺼운 솜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을 때는 무서웠어요.”

1980년 5월, 김이강씨가 기억하는 '5·18'이다. 서석초등학교 후문 쪽에 살았던 그는 그때 상황이 신기하기만 했다. 친구들과 야구를 하면서 놀 때 옆에서 구호를 외치던 대학생형들, '전두환을 갈기갈기 찢어죽이자. 김대중을 석방하라' 플래카드가 붙은 트럭들, 처음엔 시민군에게 김밥을 싸줬던 할머니와 어머니가 하루이틀이 지나자 그만둔 일도 공금했다. 할머니에게서는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초등학생 시각에서 1980년 5월 광주를 바라본 인터뷰집이 발간됐다. 사진작가 문선희(여·38)씨가 펴낸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담벼락에 묻힌 5월 광주'(난다)다. 책에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현재 40대 80명 이야기와 함께 그들이 살았던 동네 건물 사진이 실려있다. 작가가 지난 2년간 인터뷰한 사람들이다.

문씨는 출판기념회(11일)를 겸한 사진전 '문다. 두번째 이야기'를 22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개최한다.

'문다'를 주제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가족 매몰지 사진을 찍었던 문씨는 이번엔 5·18 기억을 텍스트와 렌즈에 담았다. 책 제목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씨는 '인터뷰이들에게 기억이 묻어있다'는 의미를 첫번째로 꼽았다.

문씨는 “3년 전 5·18 관련 작업을 기획할 때 공포와 폭력적인 이미지만 떠올라 다른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며 “친한 언니가 ‘그때 나

초등학교에 입학했잖아’라고 말한 게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었지만 “왜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나”며 누구도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당시 어린이들에게 주목했다. 인터뷰를 하며 만났던 사람들은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철부지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용기와 희생, 숭고한 정신뿐 아니라 공포, 신기함, 즐거움 등 다양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탱크가 지나가자 신나서 쫓아갔던 이정록(당시 10살)씨, 흔들면 재채기가 나오던 불발 최류탄을 '요술공'이라 부르며 가지고 놀다 잘못 터져 눈물바다가 됐던 정재호(당시 8세)씨,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은 천진난만했다. 시민군이 던져준 빵이 마냥 좋았지만 밤만 되면 들리는 총소리와 창문을 이불로 막던 어머니 모습은 무서웠다.

이해 못할 일도 있었다. 농성초등학교에 다니던 김건(당시 11세)씨는 군용 트럭을 타고 군인들이 지나가자 어른들이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봤다. 다 지나가자 몇몇 어른은 욕을 했다. 그런 데 얼마 뒤 같은 길을 시민군이 지나가자 어른들은 또 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어떤 어른들은 욕을 했다. 어린 마음에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조승기(당시 10세)씨는 중학생이었던 형이 일주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아 집이 초상집 분위기가 됐던 기억을 떠올렸다. 간신히 찾은 형은 도청 앞에서 전단지들을 뿌리고 있었다. 한번은 시민군 트럭에 동네아주머니들이 김밥, 주먹밥, 물을 올려주던 시민군들은 빵, 콜라를 내려준 모습을 봤다. 어린 마음에 '이런 건 언 좋아하거든

나'고 생각했다.

최장호(당시 9세)씨 기억은 충격적이다. 지난 동네 살던 그는 오라실에서 오락을 하던 중 다급하게 '집에 가라'는 주인 목소리를 들었다. 옛 남도극장 앞 도로를 건너 집에 가는데 총소리가 들렸고 옆에 있던 어떤 형이 쓰러졌다. 그 형 얼굴을 보니 절반은 형태가 없었다.

책에는 글과 함께 그들이 살았던 동네 건물을 찍은 사진이 담겨 있다. 5·18 기념물을 직접 찍기 보다는 그때 기억이 묻어있는 현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각 사진작품마다 인터뷰 내용에서 영감을 얻은 제목을 붙였다. 김건씨가 살던 동네에서 찍은 하얗게 바랜 낡은 시멘트벽이 등장하는 작품은 '우리나라, 만세'다.

책을 출간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게 가장 어려웠다. 총장로 길거리, 카페, 술집 등에서 40대로 보이는 사람마다 5·18에 대해 물어봤다. 어떤 이는 “혹시 기부금을 받으려고 하나”며 외면하기도 했고 어느 동창회 SNS에 가입했다 쫓겨나기도 했다.

정치적 이유 때문인지 “이런 책이 팔리겠냐”며 출판사 거절도 잇따랐다. 다행히 (사)광주학교 후원과 출판사 '난다'에서 인쇄비 전액을 지원하며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책은 18일부터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씨는 “점점게 보이던 인터뷰 대상자들이 5·18 이야기를 할 때면 다시 초등학생이 된 모습이었다”며 “어린이가 불완전한 기억으로 치부될 수 있었지만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선희 사진작가가 5·18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를 찍은 작품 '담!'.

515갤러리 '양림동 화가들-이강하 Memory'전

6월 3일까지

양림동 출신 화가들을 꾸준히 소개해 온 515갤러리(광주시 남구 양림동)가 6월 3일까지 '양림동 화가들-이강하 Memory'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08년 5년간의 투병생활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난 고(故) 이강하 작가 일대기를 들여다보는 작품과 아카이빙 자료를 선보인다.

이 작가는 무등산과 영산강 등 전라도 풍경을 주로 작품 소재로 삼았다. 역사적 한과 통일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사실주의적 방식으로 담은 게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산강과 어머니', '자화상' 등 1980~2000년까지 작업했던 대표작을 시대별로 살필 수 있다. 비단길을 걷고 있는 노파가 등장하는 '영산강과 어머니'는 정감어린 추억을 자극한다. 또 생전 꼼꼼한 제작기법과 엄청난 작업량으로 유명했던 그가 남긴 화집 5권과 전시 관련 자료도 출품된다. 그밖에 광주일보



'영산강과 어머니'

등 지역언론에 연재했던 해외 여행 기행문과 풍물그림도 만날 수 있다. 그는 광주일보에 1993년 중남미, 1997년 인도 등 두차례 여행 특집을 실으며 해외 역사와 문화를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영암 출신인 이씨는 5·18 때 시민군 활

약하며 1개월간 옥고를 치루고 2년여 지명수배를 당했다.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길렀으며 5·18기념재단 회원, 광주시체육회 펜싱협회이사를 역임했다. 문의 062-654-30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화전당 14일 아시아 실험영화 국제 네트워크 포럼

색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예술영화, 비디오아트 등에 영향을 미친 실험영화의 세계와 대표작을 감상하는 국제포럼이 광주에서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ACC)은 오는 14일 문화전당 극장 2에서 '아시아 실험영화 국제 네트워크 포럼 : Galaxy 67'을 개최한다.

행사는 '재귀적 시네마', '퓨처 시네마', '은하계 1967-2016' 세 개의 주제를 축으로 진행된다.

'재귀적 시네마'는 영화예술에서 실험영화의 위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필름 아카이브의 디렉터 헤이든 게스트, 실험영화와 비디오아트의 기록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의 수석 아키비스트 존 클라스만의 발제와 토론, 상영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퓨처 시네마'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서 미래영화로서 실험영화가 지니는 가능성을 살핀다. 로테

르담 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줄리안 로스, 중앙대 영화학과 김지훈 등이 토론한다.

'아시아 실험영화' 아카이브의 첫 복원작인 아다치 마사오



아다치 마사오



영화 '은하계'

의 '은하계'도 세계 최초로 상영된다. 1967년 제작된 '은하계'는 초현실주의 영화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아다치 마사오의 대표 작품과 자료는 라

이브리리파크 블랙박스 1관, 2관에서 한 달 동안 상영, 전시된다. 이번 행사는 모두 무료. 참조 ACC홈페이지(www.acc.go.kr) /윤영기기자 penfoot@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400여점 전시

6월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2016. 6. 7(화) ~ 6. 10(금)

개요 | 작품 공모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6년 6월 23일(목)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7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